



복지관 벽 나눔 붓으로 행복을 색칠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벽화 재능기부 화가 윤상호 씨

“쌍둥이 형제 모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설날 응돈을 받으면 샌诘을 문구점에 가서 종이를 샀죠.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했던 아이는 이제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서 새롭게 문을 연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사무실과 주방, 재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곳은 회색의 여느 복지관과 달리 차분한 느낌의 하늘색과 초록색 등 천연색이 가득하다.

사무실과 주방 등 각 공간을 연결하는 기다란 중앙 통로에는 악살스런 표정의 캐릭터들이 형형색색의 배경 위에서 뛰놀고 있다. 활짝 웃고 있는 구름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피아노 건반 위를 달리며 노래하는 기차, 바다 위에서 배보다 더 큰 고

래를 낸 사람들이 그려진 건물 내부를 걸다 보면, 말하는 토키를 발견한 ‘이상한 나라의 앤디스’처럼 환상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듦니다.

벽화를 그린 윤상호(45) 작가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고, 동화 속으로 들어가 앤디스처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작가로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렬한 색과 사실적인 묘사로 드러내는 것을 지향하고, 따뜻한 색감과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그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복도 내부를 그림 메운 벽화 앞에는 그림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직원들도 벽화 주인공들에게 ‘행복 1호’ 등 이름을 붙여주며 친근함을 나타냈다.

개관에 앞서 재능기부에 나선 윤 작가는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파

추어 그림 동호회 ‘연필스케치’ 광주·호남 방 회원 30여 명과 벽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달부터 일주일 간 복지관을 찾아 반나절 넘게 벽에 도안을 그린 그는 피곤한 보다는 뿌듯함을 얻었다고 말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림을 그리며 뜻 깊은 일을 하게 돼 오히려 즐거웠다는 그는 복지관 직원들이 그림과 친구가 됐다는 소식에 아이처럼 밝게 웃었다.

광주에서 태어나 화가를 꿈꿨던 윤 작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화가’라는 꿈을 잠시 접었다. 하지만 미대를 포기한 후에도 광고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했고, 36살의 조금 늦은 나이에 조선대학교 미대에 입학했다. 힘든 시기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길을 걷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쌍둥이 동생은 영화 ‘이끼’와 웹툰 ‘미생’으로 알려진 윤태호 작가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뛰어노는 걸 좋아할 시기에도 저희 형제는 집 안에서 그



광주 동구 장애인 복지관 지하 1층 복도에 윤상호 작가가 그린 그림.

집에 몰두했어요. 저희 가족 중 쌍둥이 두 명만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동생 그림을 보며 좋은 점은 배우고, 고칠 부분은 지적해 주기도 했죠.”

그는 윤태호 작가에 대해 평소에는 텁텁한 성격이지만 작품을 시작하면 빈틈을 보이지 않는 프로가 된다고 했다. 이런 처칠

한 노력이 있었기에 직장인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얻은 ‘미생’이 탄생한 것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오는 4월 30일 서울 인사동 경인갤러리에서 열리는 10인 그룹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대중에게 커다란 주목받는 동생을 보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만의 내실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김성호 전 복지부장관, 조선대 석좌교수에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조선대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11일 조선대 석좌교수 추대장을 받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가 33년 동안 공직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균형 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접목해 조선대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들어와 서울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으며 2012년 가천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달청장 시절 전자조달 제도를 처음 도입해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절에는 의약분업 후유증을 해소하고 국제 기구 첫 수장(세계보건기구 故 이종우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관 퇴임 후에는 바쁜 사회공헌포럼을 결성해 공동대표로서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는 기부문화와 바람직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발족한 호남미래포럼 상임운영위원회를 맡아 호남 발전을 위해 인사차별과 인재 양성, 경제적인 낙후 현실 극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체계증기자 chae@

“투석 환자 위한 새벽 출근, 당연한 일이죠”

15년째 함평성심병원 신장실 근무 이희순 간호사

“신부전증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남다른 애정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15년 째 투석환자들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함평성심병원 신장실(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이희순(여·42)씨다.

이씨는 이곳에서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의 혈액투석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고, 한번 투석하는데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대부분 60~70대 노인환자들로 혈액투석실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손길을 필

요로 하고 있다. 그녀는 오랜 경험만큼이나 특별한 배려심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이 간호사는 하루 일과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 하루를 남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습관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일찍 출근하다보니 다른 동료들에게 괜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했다. 그녀가 일찍 출근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받는 신부전증 환자 중에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투석하는데 4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딱한 사연을 듣고 모른척 할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만큼 보람을 얻고 있어요.”

함평군 학교면 김모(56)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녀 덕분에 투석치료를 받으면서 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신부전증 환자들이 치료 받으려 다니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아시아문화개발원-광주교대 교류 협약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1일 광주교대 소회의실에서 광주교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개관 준비 및 지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교대 제공)

광주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학교 협의회’



광주시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정석기)은 11일 광주지역 74개 유치원·초·중·고 교감과 연구학교 업무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연구학교, 신나는 운동’을 주제로 ‘2014학년도 연구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제공)

윤중한 신임 코레일 광주본부장 취임



신임 코레일 광주본부장이 윤중한(51) 코레일 안전본부장이 11일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2008년 광주역 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다시 광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운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도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발전이 철도수요 증진과 연계되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MBC 사장에 최영준 전 보도국장



목포 MBC 사장 이장석 전 본부장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문철호(부산MBC), 김환열(대구MBC), 이우용(춘천MBC), 안우정(강릉·삼척MBC), 한윤희(MBC플러스미디어), 심원택(MBC아카데미)씨가 각각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13일까지 열리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정급(2급) 전보 ▲경영기획팀 윤동훈

▲마케팅팀 선경덕 ▲항만시설팀 박종서

▲여수사업소 김한준

◇차장급(3급) 전보 ▲경영기획팀 서휘원

백정원 ▲경영지원팀 정기철 장방식 ▲물류기획팀 임형운 이석훈 ▲마케팅팀 고우관 ▲항만운영팀 이성표 ▲항만건설팀 허정식

◇과장급(4급) 전보 ▲마케팅팀 권용재

박상우 ▲항만운영팀 윤승재

◇대리급(5급) 전보 ▲경영기획팀 송경준

▲재무회계팀 정연형 ▲물류기획팀 김병환

일 운영) 062-233-046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아시아실버원드 오케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중 팀 1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구역 평균소득 120%(인 가족기준소득 568만3000원) 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재)한국노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 지역 ‘엑스트라’, 단역 대모집=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실 보조출연자분 모집. 영화를 좋아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분 환영. 062-385-9077.

▲다음카페-참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환청, 혼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

환, 만성난지·급연금주, 악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증 010-6609-9068.

▲시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

225-6500, 011-610-5575.

부음

▲박순씨 별세 서성호(조선대 교수)씨 모친상=1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7분향소 062-231-8907.

▲심이섭씨 별세 이현기·원현·형갑·순자·쌍금 씨 모친상=12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2014학년도 연구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

2014학년도 연구학교 협의회(2014. 3. 11일 14:00)

2014학년도